

광주일보 12기 리더스아카데미-유성한 서울대 교수 '이집트 문명의 영광과 몰락' 강연

“이집트 문명 속 평화조약, 현대 사회에도 유효”

기원 전 3천년 통일된 첫 국가 상호 불가침·방위 동맹 조약... 외교 중요성·상호 협력 등 강조 문명 지속 위해 깊은 성찰해야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문명을 ‘나일강의 선물’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나일강은 사막지역인 이집트에 농업 뿐 아니라 일상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고, 강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들은 흙을 옮겨 새로운 땅을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단순한 자연 자원을 넘어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지난 19일 열린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는 ‘이집트 문명의 영광과 몰락’을 주제로 한 유성한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유성한 교수는 전문 통번역사로 활동하다 우연히 성악가로서의 매력에 빠져 독학을 시작해 미국 브라운대 이집트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부터 강단에 서고 있는 그는 고대 이집트의 주요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문헌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KBS ‘역사저널 그날’, tvN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유성한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가 지난 1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12기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이집트 문명의 영광과 몰락’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메소포타미아와 함께 수렵·채집만 하던 인간이 약 1만여년 만에 현 수준의 문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선두주자였던 이집트의 문명은 크게 고왕국 시대·중왕국 시대·신왕국 시대로 나뉘어 발달, 부흥, 쇠락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다. “대개 우리는 ‘국가’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 자랐고 또 생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국가 자체가 없던 시절 국가란 어떤 것인지 맨 처음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기원전 3000년경 통일된 최초의 국가가 성립됐고,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가 확립됐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업이 번창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레 예술과 건축, 정치·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발전과 생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나일강’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나일강의 ‘범람 주기’는 이집트인들에게 예

측 가능한 패턴을 제공해 농업 중심의 사회 구조가 형성되고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가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체결된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에 대해서도 조망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유엔의 뉴욕 본부 외벽에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하투실리 3세가 맺은 이 조약의 점토판 사본이 장식돼 있을 정도로 고대 문명의 외교적 성과가 현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원전 13세기 초 이집트와 히타이트는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카데시(오늘날 시리아)의 지배권을 두고 전투를 펼쳤지만, 16년 간 지속된 전투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자원 소모를 겪은 양측은 서로의 세력을 인정하고 안정적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담긴 상호 불가침·국경선 인정·제3국

침략에 대한 방위 동맹 등의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외교의 중요성, 상호 존중과 협력,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요성으로 강조된다. 기원전 332년 이집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정복되면서 고대 문명으로서의 존재를 잃게 됐다. 정치적 불안정, 외부 침략, 경제적 쇠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던 이집트 문명의 몰락은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이집트 문명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실수와 성공 사례를 학습하고 반영하는 것이 정책 결정과 사회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한편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다음 강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의 강의로 이어진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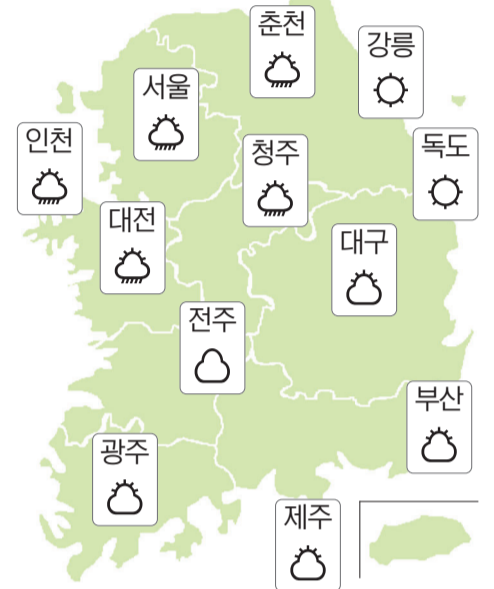
해돋이	07:13	달뜨기	22:32
해질	17:23	달지기	12:21

손사린 아침

아침 기온 5도 내외로 춥고, 일교차 크겠다.

광주	구름많음	5/15	보성	구름많음	2/14
목포	구름많음	8/15	순천	구름많음	5/16
여수	맑음	8/15	영광	구름많음	5/16
나주	구름많음	3/16	진도	구름많음	7/16
완도	구름많음	7/17	전주	흐림	5/15
구례	흐림	3/15	군산	가끔비	5/15
강진	맑음	4/16	남원	흐림	3/14
해남	구름많음	4/16	흑산도	흐린대우름	12/16
장성	구름많음	3/16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	0.5~1.0
	면바다(북)	0.5~1.0	0.5~1.5
남해 서부	면바다(남)	0.5~1.0	0.5~1.5
	앞바다	0.5	0.5~1.0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37	05:23
	23:41	18:23
여수	06:10	00:03
	19:12	12:59

◇ 생활지수

미세먼지	나쁨
------	----

◇ 주간 날씨

	22(금)	23(토)	24(일)
	8/12	1/12	2/15
	25(월)	26(화)	27(수)
	5/16	9/15	5/10



하이트진로 광주 대학생 서포터즈 나눔 봉사활동

하이트진로 광주 대학생 서포터즈 ‘하이파이브’ 6기는 지난 19일 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하이트진로 대학생 서포터즈 및 하이트진로 전남 TFT 임직원은 두껍배이커리 광주점을 방문해 쪽방촌 이웃들에게 전달할 빵을 직접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두껍배이커리 대표 메뉴인 단팻빵, 소보로, 러스크 300개를 만들고 포장했다. 이날 만든 빵은 광주 동구지역자활센터를 통해 광주 동구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개원 119주년 기념 감사예식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이 20일 개원 119주년을 기념 감사예식을 가졌다. (사진) 감사예식에서 주례목사(광주기독병원재단이사장)는 “치유를 통한 복음전도는 1905년부터 이어온 우리의 정체성이다”며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다. 이승욱 병원장은 “119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미션

인 세계 최고 기독교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역량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1905년 11월 20일에 선교사 사택으로 사용되던 기와집에 진료소(광주제중원)를 개설하고 첫 진료를 시작했다. 이를 기념해 해마다 농어촌의료선교, 환경정화캠페인, 전직원 한마음체육대회, 해외의료봉사 등 개원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1 FAX 062-222-4918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사·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에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기정암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화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연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

- 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권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요일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한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산청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산청동 대광로제비마을

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물러내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 모집=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